

화순전남대병원 사랑음악회 개최



화순전남대학교병원(원장 범희승)은 지난 23일 오전 지하대강당에서 환자와 보호자들을 상대로 광주YMCA 민트오케스트라가 주최하는 사랑음악회 '음악은 행복을 싣고'를 개최했다.

전남체신청 7급이하 공무원 조직활성화 교육



전남체신청(청장 김치동)은 25~26일까지 우정가족 新문화 창출과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공유를 위해 7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85명을 대상으로 조직활성화 교육을 실시한다. (전남체신청 제공)

민주 전남도당 여성위원회 장흥서 일손돕기



민주당 전남도당 여성위원회(위원장 박해숙 전남도의원)는 지난 24일 장흥군 용산면 매실농원을 찾아 매실 수확과 저잣, 매실장찌찌 만들기 등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벌였다. (민주당 전남도당 제공)

한국프라임제약, 수출 기여 이사에 승용차 포상



한국프라임제약(대표 김대익·원쪽 두번째)은 24일 신제품 적기 개발과 해외수출에 크게 기여한 개발부 허현(원쪽 세번째) 이사에게 벤츠 승용차를 포상했다. (한국프라임제약 제공)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화족

▲정국재·박태라씨 사남 친대군 양평(대한복식연맹 부회장)·김순임씨 차녀 김윤양=27일(토) 오후 1시30분 예별무상웨딩컨설팅 2층(리벤틱홀)

▲권준수·오관금씨 장남 원석군 정영우(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총무 팀장)·오광숙씨 장녀 소년(광주 문 산중 교사) 양=28일(일) 낮 12시 신 양파크호텔 1층 웨딩홀(그랜드볼룸)

동창·동문회

▲북성중 제26회 동창회(회장 이 혁선) 월례회=26일(금) 오후 7시 상무 삼계탕, 062-381-1131.

▲북성중 제28회 동창회(회장 윤종철) 월례회=26일(금) 운암동 참 치&전복, 062-521-0037.

▲광주상고 제23회 화순동창회

(회장 최성기) 기족아유회=27일 (토) 오전 10시 백아산 향양림, 016-604-2799.

▲북성중 제27회 동창회(회장 윤영천) 월례회=27일(토) 오후 7시 화정동 장어촌, 062-368-3392.

▲동신고 총동창회(회장 손철봉)

정기이사회=29일(월) 오후 7시 프 라도호텔, 010-3647-9977.

▲칠칠회 모임(회장 김정호)=26 일(금) 오후 6시30분 미송식당, 062-223-6322, 010-6455-6296.

▲재광 영광군 향우회(회장 김영용) 등산회 모임=27일(토) 오전 10 시 무등산 증심사 입구.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 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기술 및 위기 청소년보호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수시 입소가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제16차 어린이 역사문화 텁방 =28일(일) 오전 9시~오후 6시까 지 도선국사, 왕인박사, 영산호 농업 박물관. 문의 광주불교교육원(062-228-9098).

▲광주생명의 전화 무료 상담= 24시 전화 상담 전국 공통 1588-9191. 광주 062-223-9191. 면접 상 담은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5 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 자들에게 상담을 통한 정서적 지지 와 격려 등.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담=월~금 오전 9시~오후 6

시. 국법없이 132. 무료 법률 상담 및 법률구조, 면접 상담은 광주지방 검찰청 만원실 2층.

▲호남해바라기 이동센터 무료 상담 및 의료·법률 지원=성폭력 피해를 입은 13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상담을 대상으로 긴급구조, 의료·법률 지원 및 심리 치료 등 원스톱 서비스. 062-232-1375, www.fochild.or.kr

모집

▲광주대 평생교육원 수강생 모집=독서치료사- 매주 월요일 오후 7시~10시, 방과후아동지도사- 매주 화요일 오후 7시~10시, 심리상담사-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1시,

강사- 시인·아동문학가·심리상담 지도사 김성구 박사, 문의 평생교육원(062-670-2167, 2168).

▲원불교 문화센터 회원 모집=

서예 (월·수 오전 10시), 요가 (월·수 오전 10시), 다도 (목 오후 2시) 노래교실 (화 오후 2시), 규방공예 (화 오전 10시) 쌍촌동 원음방송국, 062-232-7223~4.

▲아카데미 자원봉사협의회 지원 봉사 모집=월 3~4회 노인 돌보 미·노인 무료급식·환경 사수 활동 가능한 봉사자 모집. 062-412-3201.

▲부동산 경·공매 동호회원(무료) 모집=기초부터 현장 답사, 물건·재권 권리분석, 부동산 미래 가치 및 환금성 분석 등. 문의 010-607-4614.

▲유급지원병(전문병) 모집=중 졸 이상 학력으로 해당 특기·자격·면허 또는 전공과 학사수업 모집 인원 1천명. 의무복무기간은 일정병과 동일, 연장복무기간은 하사로 영내 거주하며 이 기간 중 월 120만원·지 원장려수당 월 60만원 지급. 문의 광주전남지방법무청 협력입영팀 062-230-4246~9.

▲적십자사 수지침 봉사회 회원 모집=수지침 요법을 배워 사회봉사에 참여할 분. 무료. 018-610-3360.

▲청수 조기 축구회 회원 모집= 45~55세 매주 수·금·토·일요일 오전 7시부터 수창초 운동장 017-612-7695.

▲불립 동호회 '디아몬드' 회원 모집=30세 이상 부부, 매월 첫째 월 금요일 011-607-0347.

▲한국웃음협회 회원 모집=건강 회복과 웃음문화 보급을 위한 웃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임. 010-607-1958.

▲어린이재단 전남가정위탁 지원 센터 위탁 아동·부모 모집=친부모의 사망·가출 등으로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한 위탁 아동과 봉사 차원에서 아동을 양육해 줄 위탁부모 모집. 061-279-1225~6.



“불우 청소년에 쓴다면 양어머니도 기뻐하실 것”

나주혁신도시지원단 나도팔 단장의 아름다운 선행

병마와 싸우며 장애인 딸과 함께 어렵게 살고 있는 노인을 양어머니 삼아 무려 30여 년을 봉양해온 전남도 공무원이 양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거액의 유산을 장학금으로 내놓아 가슴을 끌고 있다.

전남도 혁신도시지원단 나도팔(56) 단장은 지난 3일 양어머니로 모시던 김복님(향년 82세)씨의 1주기 맞아 고인이 통장에 담아 자신에게 남긴 4천만 원을 전액 나주교회 장학기금으로 기탁했다.

나 단장과 김씨의 인연을 맺은 것은 나주교회를 함께 다닌 30여 년 전으로 거슬러올라간다. 당시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장애인 딸과 함께 살며 생활보호대상으로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는 김씨를 안쓰럽게 생각한 나 단장은 의지할 데 없는 김씨를 어머니 삼아 아들노릇을 해왔다.

25년 전에는 김씨의 지병인 혈액암이 급격히

악화되자 나 단장이 직접 나서 조선대병원에서 수술을 받도록 해주고, 간병까지 도맡는 등 사실상의 아들역할을 다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6월 김 씨가 임종하자 당시 해

부 병 불우노인 양어머니 삼아 30년 돌봐

지난해 임종때 나단장에 4천만원 유산

1주기 맞아 전액 장학금으로 쾌척

남부군수로 재직중이던 나 단장은 상주로서 사흘 동안 빙소를 지키며 장례절차를 도맡았다. 장례가 끝나자 지인들이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나 단장의 이름으로 된 적금통장을 발견하고 나 단장에게 이를 전달했는데, 이 통장에는 4천만 원이 들어있었다.

나 단장은 “생전에 용돈으로 쓰시라고 틈틈이

보내드린 돈과, 장애인 딸의 장례를 위해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적금을 들어놓으신 것 같다”며 “생생 고생해서 모은 돈을 장애인 딸이 아닌, 양아들에게 남기신 양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고 말했다.

고 김복님씨

나 단장은 이 통장을 보관해오다 지난 1일 적금이 만기되자 4천만원을 전액 인출, 고인이 명예관사로 일하던 나주교회에 불우청소년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탁했다. 나 단장은 또 고인의 딸(64세)도 평소처럼 봄보아 줄 생각이다.

나 단장은 “지난 1년간 이 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 곰곰이 생각을 해왔다”며 “어려운 청소년들 뒷바지하는데 이 돈을 쓴다면 하늘에 계신 양어머니께서도 기뻐하실 거란 생각에 장학기금으로 내놓기로 했다”고 말했다.

/총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알郎 궤로 빛축제총감독에

광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외국인 명예시민 50명 돌파

광주시의 외국인 명예시민이 50명을 돌파했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29일 '2009 광주세계광축스포' 빛축제 예술총감독인 알郎 궤로(64·Alain Guilhot)씨에게 외국인으로는 50번째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

광주시가 지난 1966년 11월 당시 천주교 대학교수 하를드 헨리 교수장에게 첫번째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뒤 광주시의 외국인 명예시민은 40여년 만에 50명을 돌파하게 됐다.

광주시가 지난 1966년 11월 당시 천주교 대학교수 하를드 헨리 교수장에게 첫번째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뒤 광주시의 외국인 명예시민은 40여년 만에 50명을 돌파하게 됐다.

하를드 헨리 교수장은 당시 까리파스 수녀회의 한국 진출을 돋고 광주 학동에 수녀회 본원과 수련원 활동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생의 한가운데'의 작가 린저도 1975년 문화교류 공로를 인정 받아 명예시민에 위촉됐다.

루이제 린저 외에 문화계 인사로는 재일동포 사업가인 하정웅씨가 1993년 광주시에 미술작품 212점과 기증한 공으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했다.

지난해에는 오쿠이 엔위저 광주비엔날레 예술총감독이 명예시민에 위촉됐으며, 장평왕 중국 광저우 시장은 2007년 11월 국제교류 협력에 기여한 공으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시정에 도움을 준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추천을 받아 선정하며 명예시민인 만큼 기념 표와 메달을 수여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부상이나 혜택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스포츠계 인사로는 지난해 광주를 방문했던 스페인 바그 국제대학스포

이석형 함평군수 가장 일 잘하는 단체장

나비축제 가장 성공적인 축제… 황주홍 강진군수 3위



함평나비축제와 이석형 함평군수가 2년 연속으로 전국 민선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뽑은 최고의 사업과 단체장에 각각 뽑혔다.

25일 함평군에 따르면 조선일보사가 민선 단체장 4기 출범 3주년을 맞아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를 이끄는 시장·군수·구청장들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이석형 군수가 가장 일 잘하는 단체장에, 나비축제는 가장 성공적인 축제로 선정됐다.

이 군수는 “가장 객관적인 눈을 가진 동료 차지단체장들이 뽑아 준 거라 어떤 상보다 영광스럽고 의미 있게 다

인사

김재명 전 장관 별세

김재명 전 교통부 장관이 지난 24일 오후 7시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5세.

강진 출신인 고인은 윤군관사학

교 2기 출신으로 1군단장을 거쳐 1972년 중장으로 예편했다. 이후 제2대 병무청장, 원호처장을 역임했고 1980년 제26대 교통부 장관을 지냈다.

1980년 청조근정훈장, 85년 동탑산 업훈장을 각각 받았다. 유족으로는 아들 종호(김호타이어 대표이사)씨와 사위 김정기(변호사)씨가 있다. 민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발인은